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3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계시록 11장 15-18절

설교제목 :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스포일러’(spoiler)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망쳐놓는 사람’인데, 대개 요즘에는 영화의 줄거리나 주요 장면 등을 미리 알려 주는 행위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스포일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스토리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의 세상은 비진리의 팽배뿐만 아니라, 난리와 분쟁과 대적함이 일어나고, 경제적 기근이 심화되고, 죽음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주적 재앙이 더해질 것입니다. 전세계에 ‘코로나 19’가 퍼뜨린 것은 병균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면**, 종말의 재앙 가운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재난과 같은 삶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시선을 하늘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하늘의 음성이 큼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많이 들었던 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 그리고 종말의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이 무엇입니까? 15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인데,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즉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완성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스포일러**입니다. 고통이나 재난이 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통제할 수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이 땅을 삽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만 견뎌라, 나의 승리가 눈 앞에 있다’**. 따라서 16절을 봅시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십사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합니다.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계7:2-3) 그 수가 14만 4천명입니다.(계7:4)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 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계7:9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전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7:13에서 한 장로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정체를 묻습니다. 그러자 계7:14에서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런

데 이십사 장로들이 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 합니다.(16절) 경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본문은 종말에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천상교회의 대합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대합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교회의 대합창과 같길 바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하면 살았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의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시 115:13)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과 보상을 말씀하십니다.(계11:18) 결국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주 간의 삶의 **벧전4:7-10**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가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스포일러(spoiler)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3) 그 큰 음성을 듣고 이십사 장로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 4)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고난 중에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예배는 천상의 대합창처럼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